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49-14

1971

남북대화 50년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2021

남북대화 50년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

1971년 8월 20일, 판문점에서 남북 적십자 대표들이 만나면서 분단 이후 남북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서울과 평양, 판문점과 개성, 금강산, 때로는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남북의 만남과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총 667차례 남북회담이 진행되었고, 이중 정상회담만 5차례 있었습니다. 남북합의서도 258건이나 됩니다.

이제 반세기 남북대화의 발자취는 한반도의 생생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남북 대화는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분단의 현실을 넘어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내딛었던 소중한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통일부는 뜻깊은 남북대화 50년을 맞이하여 「남북대화 50년」 기념 화보집을 제작했습니다. 남북이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던 '장면'과,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함께 애쓰던 '노력',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남북대화 50년」이 지난 남북관계에 대한 회고와 성찰의 계기이자 앞으로 남북이 열어갈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50년간 그랬던 것처럼, 남북대화 현장의 중심에 서서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멈춰선 남북 대화와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이를 동력삼아 남북 공존과 상생의 미래를 활짝 열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지난 남북대화의 여정에 기여해 오신 여러 통일의 선배님들과 「남북대화 50년」이 완성되기까지 애써주시고, 자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10월

통일부장관 이 인 영

1. 남북대화 50년은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을 남북대화의 시점으로 하였으며, 전체 사진 총 236건, 남북회담 사진 109건, 남북회담 관련 행사 및 현장 모습 등 기타 사진 127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남북회담을 연도별로 개최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1970년대 사진은 26건, 1980년대 사진은 26건, 1990년대 사진은 49건, 2000년대 사진은 71건, 2010년대 사진은 64건입니다.
3. 연대별로 개요를 달아 해당 시기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과 주요 협의 내용 등을 정리하여 그간의 남북대화 관련 노력 및 추진 성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10년 단위로 「한눈으로 보는 연대」를 정리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남북회담 명칭은 남북회담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기하였습니다.
6. 남북회담의 비중에 따라 사진의 크기와 위치를 안배하여 남북관계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부록에는 남북회담과 합의서의 통계, 회담추진체계와 남북회담본부의 연혁을 정리하였습니다.
8. 남북회담 개최 현황 및 합의서 체결 현황은 남북회담본부의 자료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남북대화의 시작 • 007

1970년대 남북대화 • 010

1980년대 남북대화 • 026

1990년대 남북대화 • 042

2000년대 남북대화 • 072

2010년대 남북대화 • 108

새로운 남북대화를 향하여 • 144

부록 • 147

남북대화의 시작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70년대 초반이었다. 한반도에서 해방 이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정부가 수립되었고, 남북 간에는 전쟁을 거쳐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어 왔다.

냉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동서 진영 간에 데탕트가 추진되면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관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화해, 일본과 중국의 국교수립, 미국과 소련의 평화공존 등 국제사회는 마야흐로 데탕트 시대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반도의 남북 사이에도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천명하였다. 「평화통일구상 선언」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 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한 것이었다.

1971년 8월 12일 우리 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하였고, 북측이 이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 1972년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고위당국자 간 비공개 회담을 통해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대화 없는 남북관계의 시대에서 대화 있는 남북관계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 박정희 대통령 8.15 경축사 「평화통일구상 선언」 (1970.8.15., 중앙청 광장)

●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해 선의의 체제경쟁을 제안하였다.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는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이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971.8.12., KBS 방송)



●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1971년 8월 12일 남북이산가족찾기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1970

1970년대 남북대화



1970년대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조절위원회회의, 남북탁구협회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치 분야 회담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3회, 1972.10.~11.), 본회담(3회, 1972.11.~1973.6.), 부위원장회의(10회, 1973.12.~1975.3.) 등이 개최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대남·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 중단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 1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 본회담에서 간사회의 구성, 공동사무국 설치, 운영 세칙 마련 등에 합의하였고, 「7.4 남북공동성명」 합의사항 이행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후 개최된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에서는 주로 남북조절위원회 개편 문제가 논의되었다.

남북 간에는 1970년대 말에 소위 변칙대좌(3회, 1979.2.~3.)도 개최되었다. 남측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 대표가 참석하여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개최 문제를 제기하였고, 북측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표가 참석하여 민족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도 분야 회담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렸는데,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5회, 1971.8.~9.), 예비회담(25회, 1971.9.~1972.8.), 의제문안 실무회의(13회, 1972.2.~6.), 본회담(7회, 1972.8.~1973.7.), 실무대표접촉(25회, 1973.11.~1977.12.) 등이 개최되었다.

남북적십자 파견원 접촉에서는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적십자회담을 지원하는 기구로 「적십자남북회담사무국」이 1971년 9월 1일 설치되었다.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는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장소, 일시, 의제, 대표단 구성 등을 포함하는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남북적십자 본회담에서는 이산가족의 주소와 생사 확인, 자유로운 방문과 상봉, 자유로운 서신 교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기타 인도적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사회문화 분야 회담으로 남북탁구협회회의(4회, 1979.2.~3.)가 개최되어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출전 문제가 협의되었다.

1970년대 남북대화는 정치회담, 인도회담, 사회문화회담 등 총 111회가 개최되었으며,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13건의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한눈으로 보는 1970년대



- 08.12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 08.20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
- 09.01 적십자남북회담사무국 설치
- 09.20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 02.21 남북적십자 의제문안 제1차 실무회의
- 07.04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 07.04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절차 합의
- 07.27 남북적십자 진행절차 제1차 실무회의
- 08.11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기타 진행절차 및 일시 합의
- 08.16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통신기술 합의
- 08.25 남북적십자사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용절차 합의



- 07.10 남북적십자 제1차 실무회의

1970

- 08.15 박정희 대통령 8.15 경축사 「평화통일구상선언」



1971

- 09.22 남북직통전화 개통



- 09.29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진행절차·의제 합의

1972

- 08.29 - 09.02 제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 10.12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공동위원장 회의
- 11.04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합의
- 11.30 - 12.02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본회담

1973

- 03.10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간사회의
- 11.28 남북적십자 제1차 실무대표접촉
- 12.05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부위원장 회의

1974

1979

- 02.17 변칙대좌 제1차 회의
- 02.27 남북탁구협회 제1차 회의



|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 (1971.8.20.,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회담인 남북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이 1971년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남측은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의 8.12 제의를 담은 문건을, 북측은 최두선 총재 앞으로 보내는 북한 조선적십자회 손성필 위원장의 서한을 상호 교환하였다.



|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 (1971.9.20.,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의제 및 실무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 11일까지 25차례 개최되었다.



| 남북적십자 제7차 예비회담 (1971.11.3.,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1971년 11월 3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제7차 예비회담에서 남측은 별도의 정치적 대화통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남측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북측에서는 박성철 부수상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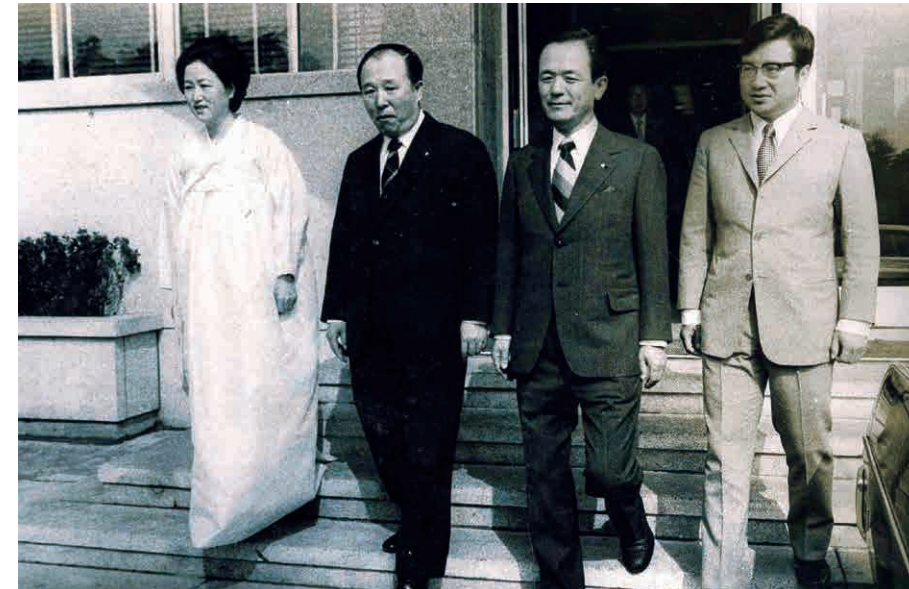
| 남북직통전화 개통 (1971.9.22., 판문점 우리측 지역 자유의 집)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의 합의에 따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자유의 집과 북측지역 판문각에 각각 남북적십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1971년 9월 22일 남북직통전화 2개 회선을 개통하였다.



| 남북적십자 제20차 예비회담 (1972.6.16.,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1972년 6월 16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 제20차 예비회담에서 의제 5개항(이산가족 주소와 생사 확인, 방문과 상봉, 서신 거래, 재결합, 기타 인도적 문제)에 합의하였다.



| 남북적십자 제25차 예비회담 (1972.8.11.,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1972년 8월 11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 제25차 예비회담에서 「본회담 기타 진행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1972.8.29.~9.2., 평양)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은 남북적십자 제20차 예비회담에서 합의한 의제 5개항을 재확인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하였다.

남북적십자회담 이모저모

- 1. 취재 중인 내외신 기자
- 2. 담소 중인 남북기자
- 3. 환담 중인 남북당국자
- 4. 남북대표단 아산 현충원 방문
- 5. 남북대표단 코스모스 백화점 참관
- 6. 남북대표단 창경궁 관람



|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공동위원장 회의 (1972.10.12., 판문점 우리측 지역 자유의 집)



- 「7.4 남북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1972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차례 개최되었다.

|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본회담 (1972.11.30.~12.2., 서울)



- 「7.4 남북공동성명」 이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본회담이 1972년 11월 30일부터 1973년 6월 14일까지 3차례 진행되었다.

-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본회담에 참석한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본회담 (1973.3.14.~16., 평양)



|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간사회의 (1973.4.24., 판문점 우리측 지역 자유의 집)



-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본회담이 1973년 3월 14일에서 16일까지 평양 모란봉 초대소에서 개최되었다.

-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준비를 위한 남북조절위원회 간사회의가 1973년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3차례 진행되었다.

| 남북탁구협회 제2차 회의 (1979.3.5.,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탁구협회 회의가 1979년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4차례 진행되었다.

| 변칙대좌 제2차 회의 (1979.3.7.,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우리측은 공식 대화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 대표가 참석하고, 북측은 조선노동당 외곽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표가 참석하여 서로 대표자격과 의제가 일치하지 않은 채 자리만 같이 한 이른바 '변칙대좌'가 1979년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3차례 진행되었다.

1980

1980년대 남북대화



1980년대에는 남북총리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체육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이 개최되었다.

1971년 설치된 적십자남북회담사무국이 남북대화사무국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중앙정보부에서 1980년 10월 20일 국토통일원으로 이관되었다.

정치 분야 회담으로 1980년 1월 12일 북한 측이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해 온 데 대해 우리 측이 1월 14일 이를 수락하여,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10회, 1980.2.~8.)이 개최되어 남북총리회담의 장소와 의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 측은 1981년 6월과 1982년 2월에 각각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간의 직접 회담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개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을 제의하였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 대통령은 제109회 국회 본회의 국정연설에서 '통일헌법 마련을 위한 민족통일협의회 구성'과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을 골자로 하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내놓았다. 후속조치로 2월 1일 국토통일원 장관은 대북성명을 통해 「20개 시범실천사업」을 북측에 제안하였다.

1985년부터 국회회담으로 예비접촉(2회, 1985.7.~9.), 준비접촉(10회, 1988.8.~1990.1.), 준비접촉 수석대표 단독접촉(1988.8.)이 열렸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하였다. 「7.7 선언」은 남북 간 인적교류,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교역, 우방의 비군사적 물자교역 용인, 국제사회에서의 남북 협력, 북한의 미·일과의 관계개선 협조와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우리 측은 1988년 12월 28일 국무총리의 대북 서한을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 등을 협의할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제의하여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5회, 1989.2.~12.)이 개최되었다.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제147회 정기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통일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 '남북연합'을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 회담으로 남북경제회담(5회, 1984.11.~1985.11.)이 개최되어 물자교역, 경제협력과 합작투자, 경제협력기구 설치, 항구 개방, 공동어로구역 설정, 경의선 연결 등을 협의하였다.

인도 분야 회담으로 1984년 9월 8일 북한 적십자회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수해물자 제공을 제의하였다. 우리 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수해물자 인도·인수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984.9.)이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1984.11.)이 열렸다.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3회, 1985.5.~12.)에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합의하고, 제1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실무대표접촉(3회, 1985.7.~8.)을 통해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각각 50명씩의 이산가족들이 헤어져있던 가족들과 재회하였다. 이후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실무대표접촉(8회, 1989.9.~1990.11.)도 진행되었다.

사회문화 분야 회담으로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관련 남북체육회담(3회, 1984.4.~5.)이 개최되어 남북단일팀 출전 문제가 논의되었고, 서울올림픽 관련 IOC중재 남북체육회담(4회, 1985.10.~1987.7.)이 열려 북한에 배정할 종목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9회, 1989.3.~1990.2.)과 실무대표접촉(6회, 1989. 12.~1990.1.)도 개최되었다.

1980년대 남북대화는 정치회담, 경제회담, 인도회담, 사회문화회담 등 총 64회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남북간 합의서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1건이 채택되었다.

한눈으로 보는 1980년대

- 02.06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
- 10.20 남북대화사무국, 중앙정보부에서 국토통일원으로 이관



- 04.09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관련 제1차 남북체육회담
- 09.18 수해물자 인도·인수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11.15 제1차 남북경제회담



- 07.07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발표
- 08.19 남북국회회담 제1차 준비접촉

● 1980

● 1982

● 1984

● 1985

● 1988

● 1989

- 01.22 전두환대통령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 02.01 국토통일원 장관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시

- 05.27 - 30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 07.15 제1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1차 실무대표접촉
- 07.23 남북국회회담 제1차 예비접촉
- 08.22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합의
- 09.20 - 23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서울·평양)
- 10.09 - 10 서울올림픽 관련 IOC중재 제1차 남북체육회담

- 02.08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예비회담
- 03.09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1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 09.11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 09.27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관련 제1차 실무대표접촉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 (1980.2.6.,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1979년 10.26 사태로 우리측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북측이 1980년 1월 12일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하였다. 남북총리회담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1980년 2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10차례 개최되었다.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제10차 실무대표접촉 (1980.8.20.,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



| 전두환 대통령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1982.1.22., 제109회 국회 본회의 국정연설)



|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시 (1982.2.1., 국토통일원 장관 대북성명)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하는 국토통일원 장관

-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이 1982년 2월 1일 민족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평양 도로 연결, 이산가족 우편교류 및 상봉,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 공동지역 개발 등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시하였다.

-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과 민족통일협의회에서의 통일헌법 기초, 남북 총선거 실시 등을 제의하였다.

|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관련 제1차 남북체육회담 (1984.4.9.,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 남북단일팀 출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1984년 4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3차례 진행되었다.

| 수해물자 인도·인수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984.9.18.,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 1984년 여름 서울과 경기 일대에 수해가 발생하자 북측이 9월 8일 방송을 통해 수해물자를 지원하겠다고 제의하였고, 9월 14일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수해물자 인도·인수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1984년 9월 18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북측은 쌀 5만석(8천톤), 옷감 50만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등을 우리측에 지원하였다.



| 제1차 남북경제회담 (1984.11.15.,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회담이 1984년 11월 15일부터 1985년 11월 20일까지 5차례 진행되었다.

|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1985.5.27.~30., 서울)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이 1985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광복절 40주년 계기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에 참가한 북측대표단이 민속촌과 삼성전자 등을 참관하였다.



| 남북국회회담 제1차 예비접촉 (1985.7.23.,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1985년 4월 9일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이 우리측 채문식 국회의장 앞 서한을 보내 '남북불가침 선언' 채택 문제를 논의하자며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였다.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제1차 예비접촉이 1985년 7월 23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통일헌법, 불가침 협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제3차 실무대표접촉 (1985.8.22.,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1985년 8월 2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이산가족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관련 제3차 실무대표접촉에서 남북은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방문단 규모는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지원인원 20명으로 하고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교환방문하기로 하였다.



| 남북이산가족 상봉 (1985.9.20.~23., 서울-평양)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 교환이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진행되었다.



| 남북국회회담 제1차 준비접촉 (1988.8.19.,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1988년 7월 9일 우리측 국회가 '서울 올림픽대회 북한 참가측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7월 18일 북측에 전달하자, 북측의 최고인민회의는 남북국회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은 1988년 8월 19일부터 1990년 1월 24일까지 10차례 진행되어 의제, 운영방식, 대표단 규모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우리측 회담대표들이 통일각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1989.9.11., 제147회 정기국회 특별연설)



●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제147회 정기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남북정상회의·남북각료회의·남북평의회 설치, 통일헌법 확정, 통일국회와 통일정부 구성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예비회담 (1989.2.8.,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1988년 12월 28일 김영훈 국무총리가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에게 남북 상호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하자, 1989년 1월 16일 북측이 동의함으로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이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 진행되었다.



|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예비회담 (1990.7.26.,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5차 남북체육회담 본회담 (1989.11.24.,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조선올림픽위원회 김유순 위원장이 1988년 12월 21일 김종하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1990년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의하였다. 남북체육회담 본회담이 1989년 3월 9일부터 1990년 2월 7일까지 9차례 개최되어 단기, 단가, 선수 선발 방법 및 단일팀 종목 등을 협의하였다.



1. 기자 질문에 답하는 북측 대표단
2. 기자 질문에 답하는 우리측 대표단

1990

1990년대 남북대화



1990년대 남북대화는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을 비롯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적십자 대표 접촉, 남북체육회담 등이 개최되었다.

소련과 동구권의 체제전환과 독일 통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 간에도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남북대화가 본격화되었다.

정치 분야 회담으로 1994년 6월 28일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을 한 차례 개최하여 남북정상회담(1994.7.25.~27., 평양)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 통신실무자 접촉 및 경호실무자접촉 등이 진행되었으나 북측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중단되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예비회담(3회, 1990.1.~7.), 예비회담 실무대표접촉(2회, 1990.7.), 본회담(8회, 1990.9.~1992.9.), 단일합의서 문안정리 대표접촉(4회, 1991. 11.) 등을 개최하여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서명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내부절차를 거쳐 발효시켰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정치분과위원회(7회, 1992.3.~8.), 군사분과위원회(8회, 1992.3.~9.), 교류·협력분과위원회(7회, 1992.3.~9.) 등이 개최되어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유엔 가입 관련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접촉(3회, 1990.9.~11.)도 진행되어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각각 유엔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3회, 1991.12.)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타결하여, 1992년 1월 20일 남과 북의 총리가 서명하고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발효시켰다.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13회, 1992.3.~12.) 등이 개최되어 핵사찰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1992년 5월 7일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1992년 9월 17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등 3개의 부속 합의서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합의서가 각각 발효되었다.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1993년 10월 5일부터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8회, 1993.10.~1994.3.)이 진행되었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기존의 통일방안을 보완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천명하여,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 단계와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도 분야 회담으로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관련 실무대표접촉(1990.11.)과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적십자실무대표접촉(8회, 1992.6.~8.)이 개최되었다.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문제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2회, 1992.10.)도 열렸다.

1995년에 들어와서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북경회담(3회, 1995.6.~9.)이 개최되어 쌀 15만 톤을 무상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 5월 3일부터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5회, 1997.5.~1998.3.)이 진행되어 15만 톤의 옥수수가 전달되었다. 1999년 5월 12일부터 시작된 북경 남북비공개 접촉(3회, 1999.5.)에서 비료 20만 톤 제공과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차관급 당국회담(2회, 1999.6.~7.) 개최에 합의하였다.

사회문화 분야 회담으로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남북체육회담이 열려 실무대표접촉(3회, 1990.1.), 본회담(3회, 1990.1.~2.)이 진행되어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1990년 9월 23일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에 우리측 체육부 장관과 북측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은 남북통일축구대회와 남북체육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4회, 1990.11.~1991.2.), 탁구 단일팀 실무위원회(2회, 1991.2.), 축구 단일팀 실무위원회(2회, 1991.2.)를 개최하여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렇게 성사된 남북 단일팀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단체전 우승, 제6회 세계 청소년축구대회에서 8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 남북대화는 정치회담, 인도회담, 사회문화회담 등 총 160회가 개최되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 등 33건의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한눈으로 보는 1990년대

- 02.21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제1차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
- 02.22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제1차 축구단일팀 실무위원회
- 11.11 남북고위급회담 단일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 12.10 - 13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12.1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01.14 남북고위급회담 비핵화공동선언 문본교환을 위한 제1차 대표접촉
- 01.23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 02.18 - 21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03.09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03.13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03.18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03.19 남북고위급회담 행동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 05.05 - 08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05.07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 합의
- 06.05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관련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 1990

- 07.06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제1차 실무대표접촉
- 09.04 - 07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09.18 남북고위급회담 UN가입 관련 제1차 실무대표접촉



- 11.29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

● 1991

- 12.18 노태우 대통령, 우리나라의 핵무재 선언



- 12.26 남북고위급회담 핵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 12.31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타결

● 1992

- 02.19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효
- 02.19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발효

- 09.15 - 18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 09.17 3개 부속합의서(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채택
- 10.01 이인모 문제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대표접촉

- 10.05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

1993

1994

- 06.28 1994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 06.28 1994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07.01 1994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
- 08.15 김영삼 대통령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1995

- 06.17 - 21 대북 쌀지원을 위한 제1차 북경회담
- 06.21 대북 곡물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1997

- 05.03 - 05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 05.26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 합의



1998

- 04.11 - 17 남북당국대표회담



1999

- 06.22 - 26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1990.9.4.~7., 서울)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이 1990년 9월 4일부터 1992년 9월 18일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8차례 진행되어, 「남북기본합의서」,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부속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 등에 합의하였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 참가한 북측대표단이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 UN가입 관련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실무대표접촉 (1990.9.18.,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유엔가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1990년 9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3차례 진행되었다.

|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1990.10.16.~19., 평양)

-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이 1990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 참석한 우리측 대표단이 김일성 주석을 예방하였다.



| 남북통일축구대회 (1990.10.9.~13., 평양, 1990.10.21.~25., 서울)

- 1990년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중 남북공동응원 등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990년 9월 23일 북경에서 남북 체육장관 간에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에 합의하고, 평양대회는 1990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대회는 1990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



|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1991.2.12.,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1990년 11월 29일부터 1991년 2월 12일까지 4차례 진행되어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데 합의하였다.



- 제4차 남북체육회담에서 국제경기 단일팀 단기로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넣은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세계탁구선수권대회 (1991.4.24.~5.6., 일본) 및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1991.6.5.~17., 포르투갈) 남북단일팀 출전



- 1991년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은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했고, 1991년 6월 5일부터 17일까지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 대회에서는 남북단일팀이 8강에 진출하였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1991.10.22.~25., 평양)



- 1991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1991.12.10.~13., 서울)

- 1991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 노태우 대통령, 우리나라의 핵부재 선언 (1991.12.18.,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특별발표)

-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12월 18일에는 “우리나라는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부재 선언을 하였다.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1992.2.18.~21., 평양)

- 1992년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시키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 참가한 우리측 대표단이 북한 김일성 주석을 예방하였다.



|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1992.3.9.,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1992년 3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였다.



|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1992.3.13.,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1992년 3월 13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였다.



|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1992.3.18.,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1992년 3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마련하였다.

|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1992.3.19.,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1992년 3월 19일부터 1993년 1월 25일까지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 핵통제공동위원회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였다.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1992.5.5.~8., 서울)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이 1992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1992.9.15.~18., 평양)



1992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 분야의 부속합의서가 발효되었다.

| 남북고위급회담 이모저모

1.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중앙박물관 참관
2.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개성-평양 열차 탑승
3.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환영
4.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앨범 전달
5.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롯데월드 참관
6.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평양 제1고등중학교 참관



|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접촉 (1994.3.19.,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등 남북 현안들을 협의할 특사교환 실무대표접촉이 1993년 10월 5일부터 1994년 3월 19일까지 8차례 진행되었다. 제8차 실무대표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단장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실무대표접촉이 결렬되었다.

|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1994.6.28.,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북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6월 북한과 남한을 차례로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중재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1994년 6월 2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어 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김영삼 대통령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1994.8.15.,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내놓았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 대북 쌀지원을 위한 제1차 북경회담 (1995.6.17.~21., 중국 북경)



- 1995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대북 쌀지원을 위한 제1차 북경회담에서 우리 측은 쌀 15만 톤을 북측에 무상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1997.5.3.~5., 중국 북경)



-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이 1997년 5월 3일부터 1998년 3월 2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5차례 개최되어, 옥수수·밀가루·라면·분유 등 구호물자 제공에 합의하였다.

- 대북 구호물자 전달을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북측의 대규모 비료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 측은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북측이 차관급 당국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당국대표회담이 1998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어 비료지원과 함께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문제를 논의하였다.

| 남북당국대표회담 (1998.4.11.~17., 중국 북경)



| 금강산 관광 (1998.11.18.~2008.7.11.)



- 현대 아산은 1998년 10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관광 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11월 18일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첫 출항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다.



| 제3차 남북비공개접촉 (1999.5.29.~6.3., 중국 북경)



- 1999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3차례 남북비공개접촉을 갖고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1999.6.22.~26., 중국 북경)



- 남북비공개 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이 1999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2차례 진행되어 비료지원 및 이산가족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2000

2000년대 남북대화



2000년대 남북대화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공동위원회,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적십자회담 등과 분야별 실무회담이 열렸다.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농업 구조 개혁에 협력할 용의를 표명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당국자 간 대화를 촉구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남북특사접촉(4회, 2000.3.~4.)이 열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5회, 2000.4.~5.), 통신·보도 실무접촉(2회, 2000.5.), 경호·의전 실무접촉(1회, 2000.5.) 등을 거쳐 남북 간에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2000.6.13.~15., 평양)이 개최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 등을 담은 「남북공동선언」(6.15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2007년에는 남북특사접촉(2회, 2007.8.)을 통해 남북정상회담(2007.8.28.~30., 평양)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의 수해로 연기되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채택하여,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종전선언 추진, 남북경제협력사업 활성화, 사회문화 교류·협력, 인도주의 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다.

정치 분야 회담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중심적 협의체인 남북장관급회담(21회, 2000.7.~2007.5.)이 열려 정치·군사·경제·인도·사회문화 분야의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에는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총리회담(2007.11)이 개최되었다.

군사 분야 회담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2회, 2000.9., 2007.11), 남북장성급군사회담(7회, 2004.5.~2007.12.), 남북군사실무회담(37회, 2000.11.~2008.10.)이 열려 군사적 신뢰구축 및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경제 분야 회담으로 「6.15 공동선언」의 경제 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3회, 2000.12.~2007.4.),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5회, 2002.9.~2005.7.),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13회, 2002.10.~2007.5.),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2회, 2002.10.~2004.6.), 금강산관광 남북당국자회담(2회, 2001.10.~2002.9.) 등이 개최되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연결 등 3대 경제사업을 지원하였다. 경제협력 실무접촉(2회, 2000.9.~11.), 경험제도 실무협의회(4회, 2002.12.~2003.12.), 해운협력 실무접촉(5회, 2002.11.~2005.8.),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3회, 2005.8.~2007.5.) 등 분야별 실무접촉을 총 80 차례 진행하여 투자 보장, 이종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험합의서를 채택하였고 남북 각각 7개 항구를 연결하는 해로를 개설하였으며,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등을 추진하였다.

「10.4 선언」 경제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2007.12.)를 중심으로 철도협력분과위원회, 도로협력분과위원회, 농수산물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농업협력 실무접촉 등이 개최되어 분야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2008년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남북당국자 전반적인 대화 재개를 제의하면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이행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2009년에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실무회담(3회, 2009.6.~7.)이 개최되어 억류 근로자 석방, 토지임대료 등을 협의하였다.

인도 분야 회담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10회, 2000.6.~2009.8.)을 포함하여 수해복구지원 남북적십자 실무접촉(2006.8.),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단 회의(3회, 2003.2.~8.), 용천재난구호 실무접촉(2004.4.),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3회, 2005.7.~10.) 등 총 24회 개최되어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면회소 건설, 수해복구 및 방역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회담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실무접촉(2회, 2002.8.), 대구 하계U대회 실무접촉(2003.7.), 아테네 올림픽 공동입장 실무접촉(2004.6.),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4회, 2005.12.~2007.2.) 등이 개최되어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파견, 공동입장 등이 이루어졌다.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 실무접촉(4회, 2005.9.~2007.4.), 8.15 당국 공동행사 실무접촉(2회, 2005.7.~8.), 6.15 당국 공동행사 실무접촉(3회, 2005.5.), 조류인플루엔자 실무접촉(2005.4.), 구제역 방역지원 실무접촉(2007.3.) 등을 통해 유해 공동발굴과 남북 공동행사 개최, 방역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2007.12.)과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열차이용 관련 실무접촉(2회, 2007.12.~2008.2.) 등도 개최되었다.

2000년대 남북대화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치회담, 군사회담, 경제회담, 인도회담, 사회문화회담 등 총 250회 개최되었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174건의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한눈으로 보는 2000년대



- 03.0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 03.09 - 11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제1차 남북특사접촉
- 04.08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 04.22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제1차 준비접촉
- 05.18 2000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

- 02.07 - 10 남북전력협력 실무협의회
- 02.21 - 24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 10.03 - 05 금강산관광 제1차 남북당국간회담

- 02.13 - 15 금강산면회소건설추진단 제1차 회의
- 07.04 - 06 대구 하계U대회 실무접촉
- 12.17 - 20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 제1차 회의

2000

- 06.13 - 15 2000 남북정상회담
- 0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 06.27 - 30 제1차 남북직접접촉
- 07.29 - 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 08.15 - 18 제1차 이산가족 상봉
- 09.25 - 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 09.25 - 26 남북경제협력 제1차 실무접촉
- 11.28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12.27 - 3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2001

2002

- 04.03 - 05 대통령특사 제1차 방북
- 08.17 - 19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제1차 실무접촉
- 09.13 - 17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 10.12 - 14 남북철도·도로연결 제1차 실무접촉
- 10.30 - 11.02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 10.31 - 11.02 제1차 남북직접접촉
- 11.18 - 20 남북해운협력 제1차 실무접촉



2003

2004

- 04.27 용천재난구호 남북간 실무접촉
- 05.26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06.23 - 25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 04.22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실무접촉
- 05.24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제1차 실무접촉
- 07.12 - 13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제1차 실무접촉
- 07.22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제1차 실무접촉



- 07.26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제1차 실무접촉

- 05.16 - 17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관련 제1차 실무접촉
- 06.26 - 27 남북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 08.19 대북 수해복구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 09.12 남북회담사무국에서 남북회담본부로 개칭



2005

- 08.18 - 19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회의
- 08.24 - 27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제1차 실무협의
- 09.07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1차 실무접촉
- 12.07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

2006



2007

- 11.14 - 16 남북총리회담
- 12.0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회의
- 12.04 - 0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의
- 12.14 - 15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회의
- 12.17 - 18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 12.20 - 21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회의
- 12.20 - 21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회의
- 12.25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제1차 실무접촉
- 12.25 - 28 남북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 회의
- 12.28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관련 제1차 실무접촉
- 12.28 - 29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회의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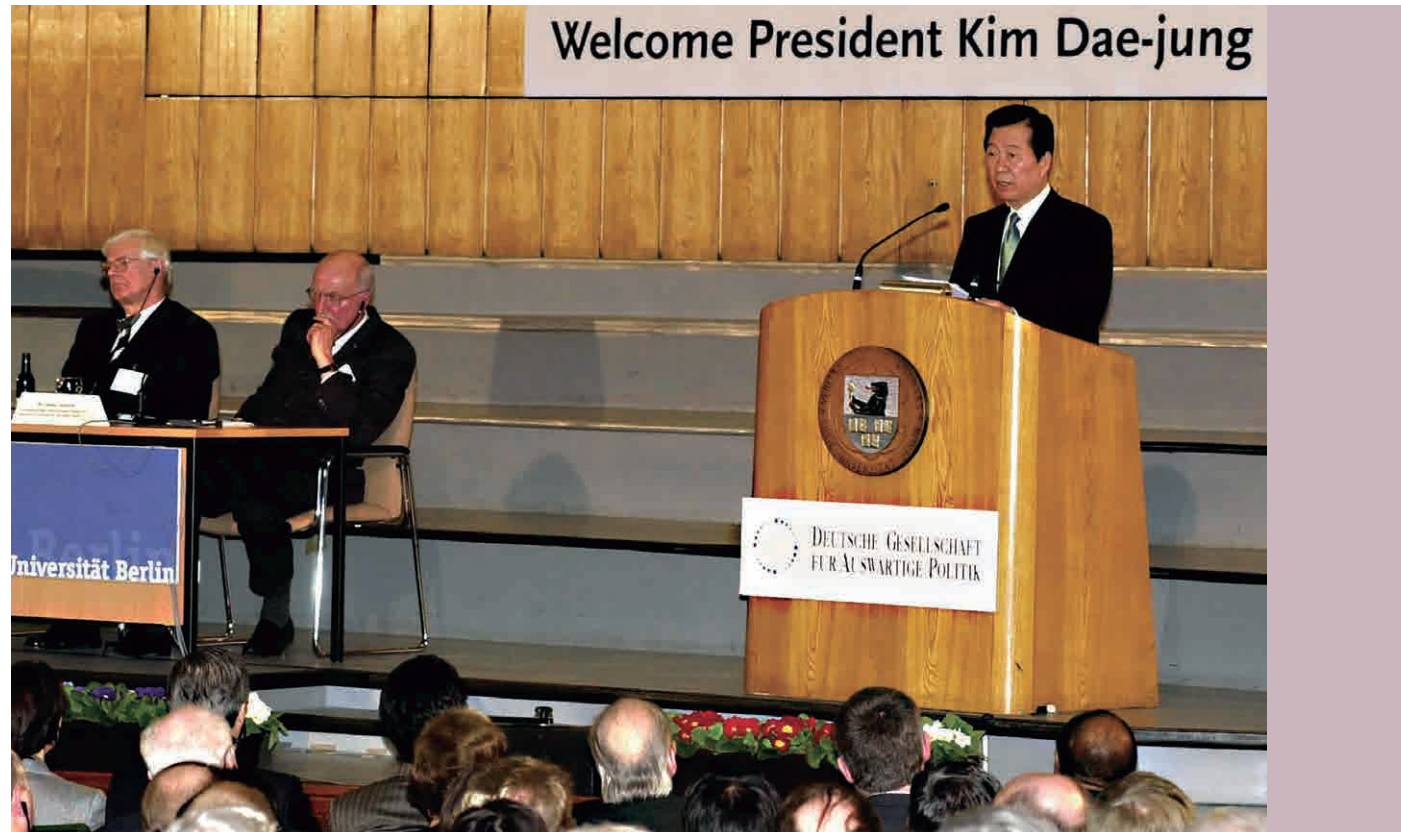
- 01.29 - 30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회의
- 02.12 - 1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회의

2009



- 06.11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
- 10.14 임진강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2000.3.9.,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3월 9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설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4가지 원칙 (정부차원 대북지원, 화해와 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남북 당국대화)을 제시하였다.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2000.4.10., 세종로 정부청사)



-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2000년 4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남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 2000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제5차 준비접촉 (2000.5.18.,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특사접촉의 합의(2000.4.8.)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이 판문점에서 2000년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차례 개최되었다.

| 2000 남북정상회담 (2000.6.13.~15., 평양)



| 2000 남북정상회담 (2000.6.13.~15., 평양)



|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 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7.29.~31., 서울)



-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29일부터 2007년 6월 1일까지 21차례 개최되어 「6.15 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분야 여러 회담들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2000.6.27.~30., 금강산)



-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이산가족 100명씩 서울·평양 동시 방문(8.15.~18.),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에 합의하였다.

-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 제1차 이산가족 상봉 (2000.8.15.~18., 서울·평양)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2000.9.1., 자강도)



| 시드니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2000.9.15.)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2000.8.29.~9.1., 평양)에 참석 중인 박재규 통일부장관이 자강도 특별초대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여 남북국방장관회담, 시드니올림픽 남북공동입장 등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 남북선수단이 처음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였다.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2000.9.25.~26., 제주도)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철도·도로 연결 및 교류협력에 따른 군사적 보장문제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0.11.28.,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2000년 11월 28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어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 남북경제협력 제2차 실무접촉 (2000.11.8.~11., 평양)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개최된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은 2000년 9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차례 진행되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합의를 채택하였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2002.8.27.~30., 서울)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의 경제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7년 4월 22일까지 13차례 개최되었다. 2002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철도 및 도로 연결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개최, 쌀 40만 톤과 비료 10만 톤 제공, 북측 경제시찰단의 남측 방문 등에 합의하였다.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2001.9.15.~18., 서울)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태권도시범단 교환에 합의하고, 서울-신의주 철도와 문산-개성 도로의 개성공단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 활성화, 남-북-러 철도연결 및 가스관 사업,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 통과,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2002.8.12.~14. 서울)



-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당국회담 개최, 북측 경제시찰단 남한방문 등에 합의하였다.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2002.9.29., 부산)



- 2002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제2차 실무접촉에서 305명 규모의 북한 선수단 파견, 개·폐회식 공동입장, 355명의 응원단 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 남북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 2002년 8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운영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강산 남북이산가족 면회소가 2005년 8월 31일 착공되어 2008년 7월 12일 완공되었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2003.8.26.~28., 서울)



- 2003년 8월 26일에서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의 궤도 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 연내 완료, 개성공단 국제적 경쟁력 구비 추진,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 경제시찰단 상호 방문 노력 등에 합의하였다.



- 1. 개성공단 착공식
- 2.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 3. 개성공단 전경



| 대구 하계U대회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2003.8.21., 대구)



- 2003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대구 하계U대회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200명 정도의 선수단과 310명 정도의 응원단, 기자단 19명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004.6.3.~4., 속초)



- 2004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2005.7.9.~12., 서울)



-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측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북측의 지하자원 개발,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에 합의하고, 북측 민간어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 2005년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2005.8.14.~17., 서울)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8.15 남북당국공동행사에 참석한 북측대표단 일행은 북측인사로는 처음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였다. 남북당국대표단은 민족통일대행진과 남북통일축구대회 등에 참석하였다.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2005.6.21.~24., 서울)



●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범 실시, 북측 민간선박 제주해협 통과 등에 합의하였다.

●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면
(2005년 8월 15일부터 2007년 11월 15일까지 총 7차례 실시)

| 2006년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2006.6.14.~17., 광주)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6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남북당국공동행사에서는 남북대표단은 민족통일대회, 남북당국 공동기념행사, 남북공동미술전 등에 참가하였다.



|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2006.7.11.~13., 부산)



- 2006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를 의제로 제기하고, 미사일 문제에 대한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 쌀 차관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하였다. 북측은 장관급회담이 군사회담이나 6자회담이 아니라고 하면서 논의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2007.2.13., 개성)



- 2008 베이징 올림픽 남북단일팀 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2005년 12월 7일부터 2007년 2월 13일까지 4차례 진행되어, 선수선발 방식과 예선전 참가 방식을 논의하였다.

|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 운행 (2007.5.17.)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2007.4.18.~22.) 합의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 구간에서 열차시험운행이 이루어졌다.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2007.5.29.~6.1., 서울)



-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남북장관급회담 이모저모



- 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대동강변 대화
- 2.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창경궁 참관
- 3.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민속촌 참관
- 4.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한강유람선상 대화
- 5.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행주산성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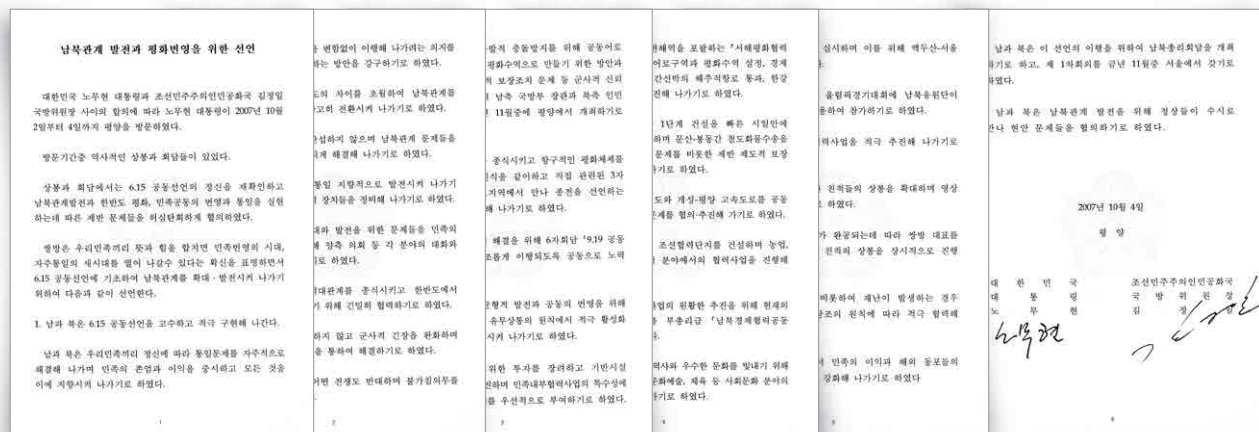
| 2007 남북정상회담 (2007.10.2.~4., 평양)



| 2007 남북정상회담 (2007.10.2.~4., 평양)



| 「10.4 선언」



- 1. 평양 5·1경기장 아리랑 공연 관람
- 2. 남포 평화자동차공장 참관
- 3. 개성공단 근로자 격려

-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특사접촉에서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하였다.

| 남북총리회담 (2007.11.14.~16., 서울)



- 「10.4 선언」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2007.11.27.~29., 평양)



-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대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의 (2007.12.4.~6., 서울)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회의가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철도·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 및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농·수산 분야의 협력, 보건·의료·환경 분야의 협력,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합의하였다.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북한 조문단 방남 (2009.8.21.~23., 서울)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북한 조문단 김기남 노동당 비서 일행이 서울을 방문하여 8월 2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후, 8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 (2009.6.11., 개성)



- 2009년 6월 11일 개성에서 진행된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1차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장기 역류 중인 근로자 문제, 출입 체류 문제 등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북측은 토지임대료 우선 협의를 주장하였다.

|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 (2009.8.26.~28., 금강산)



- 2009년 8월 26일에서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9월 26일에서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 (2009.10.14., 개성)



- 2009년 10월 14일 개성에서 개최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은 임진강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고 북측은 인명피해에 대한 유감과 함께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10

2010년대 남북대화



2010년대 남북대화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장성급군사 회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분야별 분과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체육회담 등이 개최되었다.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으로 남북공동변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을 제안하였다.

정치 분야 회담으로 남북고위급접촉(2014.2.)이 열려 2월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 회담(2014.10.), 북한 목함지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고위당국자접촉(2015.8.),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2015.11.), 제1차 남북당국회담(2015.12.) 등이 개최되어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군사 분야 회담으로 2010년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2010.9.)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2011.2.)이 개최되었고, 남북군사당국자접촉(2014.10.)이 진행되어 서해 북방한계선 월선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경제 분야 회담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4차 실무회담(2010.2.)을 시작으로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2010.2.),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2010.3.)이 열렸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 회담(7회, 2013.7.~8.),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6회, 2013.9.~2015.7.), 개성공단 남북공동 위원회 분과위원회(12회, 2013.9.~2014.1.) 등이 개최되었다.

사회문화 및 인도 분야에서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2014.7.)이 개최되어 북측 선수단 파견 등을 협의하였고, 남북적십자실무접촉(3회, 2010.9.~10.), 남북적십자회담(2010.10.) 등이 개최되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남북적십자실무접촉(2013.8.)에서는 추석 계기 이산 가족 상봉과 화상 상봉에 합의하였다.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쾰른 재단 연설(신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의 일관된 추진 등을 천명하고,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접촉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였다.

2018년 우리 측의 제의에 따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1.9.)하여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등에 합의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2회, 2018.2.),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2018.3.)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의전이 접근되어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2018.3.)에서 남북정상회담(2018.4.27.,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노력,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협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3자 또는 4자회담 추진 등에 합의하였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2018.5.,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협의하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대북특사 방북(2018.9.)을 통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여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 교류협력 증대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조성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되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등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3회, 2018.6.~10.)과 함께 남북군사실무회담(2018.9.)이 열려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대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등이 협의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2018.6.),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2018.6.),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2회, 2018.7.~10.)이 개최되어 철도·도로 현대화, 산림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협의되었다.

인도 및 체육 분야에서는 남북적십자회담(2018.6.)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남북보건의료협력분과회담(2018.11.)이 개최되어 전염병 등 보건의료협력방안이 협의되었다. 남북 체육회담(2018. 6.)과 남북체육분과회담(2회, 2018.6.~11.)에서는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2010년대 남북대화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치회담, 군사회담, 경제회담, 인도회담, 사회문화회담 등 총 82회 개최되었으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37건의 합의서 및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다.

한눈으로 보는 2010년대



- 02.08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 03.02 개성공단 3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 2010



- 06.09 - 10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 07.06 - 07 개성공단 남북당국 제1차 실무회담

● 2013



- 09.0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 09.0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09.0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09.05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09.05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02.12 남북고위급접촉
- 03.13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

● 2014



- 03.28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발표
- 07.17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
- 10.0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 10.15 남북군사당국자접촉



- 08.22 - 24 남북고위당국자접촉
- 11.26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 12.11 - 12 제1차 남북당국회담

● 2015

- 01.09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 01.15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 01.17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 02.09 - 11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계기 북한고위급대표단 방남



- 02.27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 03.05 - 06 대북특사방북 1차
- 03.20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 03.29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 04.05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의전·경호·보도 분야 제1차 실무회담
- 04.07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통신 분야 제1차 실무회담



- 05.26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 06.01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 06.18 남북체육회담
- 06.26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 06.28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
- 07.04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 09.14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실무회담
- 09.1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



2018

- 04.27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 0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



- 09.18 - 20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 09.19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 10.22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 11.07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 12.14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



|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2010.2.8., 개성)

- 2010년 2월 8일 개성에서 개최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2008.7.11.)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등을 제기하였다.



|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2013.6.9.~10.,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2013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북측은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회담을 무산시켰다.



| 개성공단 남북당국 제1차 실무회담 (2013.7.6., 개성)

- 북한은 2013년 4월 8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시켰다. 우리 측은 7월 4일 개성공단 재기동을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이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7차례 개성에서 진행되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2013.9.2., 개성)



-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재발을 방지하고 국제적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13년 9월 2일부터 2015년 7월 16일까지 개성공단공동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등이 진행되었다.

| 남북고위급접촉 (2014.2.12.,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북한이 2014년 2월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방·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2014.2.20.~25.) 합의 이행이 어렵다고 하여 2014년 2월 12일 및 1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남북은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으며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2014.3.28., 독일 드레스덴공대)



-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 (2014.7.17.,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2014년 7월 1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이 개최되어 선수단 규모, 이동경로, 응원단 파견 등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실무적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선수단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가 성사되었다.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2014.10.4., 인천)



- 2014년 10월 4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이 인천에서 개최되어,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2014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남북고위당국자접촉 (2015.8.22.~24.,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2015년 8월 4일 북한의 묵함 지뢰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이 개최되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의 조속한 개최, 지뢰 도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등에 합의하였다.

| 제1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2015.9.7.~8.,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남북고위당국자접촉 합의에 따라 제1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2015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어 2015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1차 남북당국회담 (2015.12.11.~12., 개성)



2015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민간교류 확대문제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2018.1.9.,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2018년 1월 9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측이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을 파견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마련에 노력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간 문제를 풀어가기로 하였다.

|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2018.1.15.,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2018년 1월 15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북측의 삼지연 관현악단 140명으로 구성된 예술단 파견, 강릉·서울 공연 등에 합의하였다.

|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 (2018.1.17.,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2018년 1월 1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실무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남북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북측 응원단 파견, 북측 태권도 시범단 파견,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등에 합의하였다.

| 평창동계올림픽 (2018.2.9.~25.) 이모저모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계기 북한고위급대표단 방남 (2018.2.9.~11., 서울·평창)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고위급대표단이 평창올림픽 개최식을 계기로 2018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방남하였다. 대표단은 평창올림픽 개최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 예방,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스위스팀간 경기 관람, 북한 예술단공연 관람 등을 하였다.

|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계기 북한고위급대표단 방남 (2018.2.25.~27., 서울·평창)



-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고위급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을 계기로 2018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방남하였다. 대표단은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고, 우리측 인사들과 접촉하였다.

|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2018.2.27.,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2018년 2월 27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에서 북측 장애인올림픽 대표단과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 대북특사방북 1차 (2018.3.5.~6.,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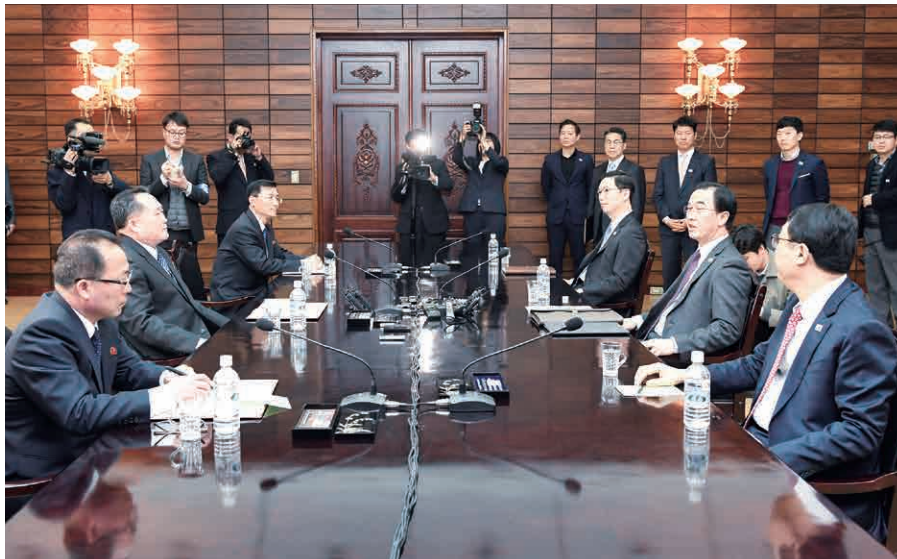
-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은 2018년 3월 5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북측은 비핵화 문제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용의 표명과 함께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다.

| 예술단 평양 공연 관련 남북실무접촉 (2018.3.20.,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2018년 3월 2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실무접촉에서 160여명의 남측 예술단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에서 2차례 공연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2018.3.29.,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2018년 3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4.27.,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4.27.,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4.27 판문점선언」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18.5.26.,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4.27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2018.6.1.,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2018년 6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적십자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체육회담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공업지구내 개설 등에 합의하였다.

|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018.6.14.,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적대행위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왕래·접촉의 군사적 보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시범적 비무장화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 남북체육회담 (2018.6.18.,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2018년 6월 1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체육회담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 7월 4일 평양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공동입장, 2018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남북간 체육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합의하였다.

|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 (2018.6.22., 금강산)



2018년 6월 22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2018.8.20.~26., 금강산) 이모저모



|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2018.6.26.,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2018년 6월 2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철도협력분과 회담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북측의 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한 현지공동조사 등에 합의하였다.



|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 (2018.6.28.,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2018년 6월 28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남북도로협력분과 회담에서 경의선 개성-평양 도로와 동해선 고성-원산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현지공동조사 등에 합의하였다.



| 제1차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 (2018.7.4.,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 2018년 7월 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산림협력분과 회담에서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 상호 협의, 산림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2018.8.13.,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 점검과 향후 실천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 대북특사방북 2차 (2018.9.5., 평양)



- 대통령 특별사절단은 2018년 9월 5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하고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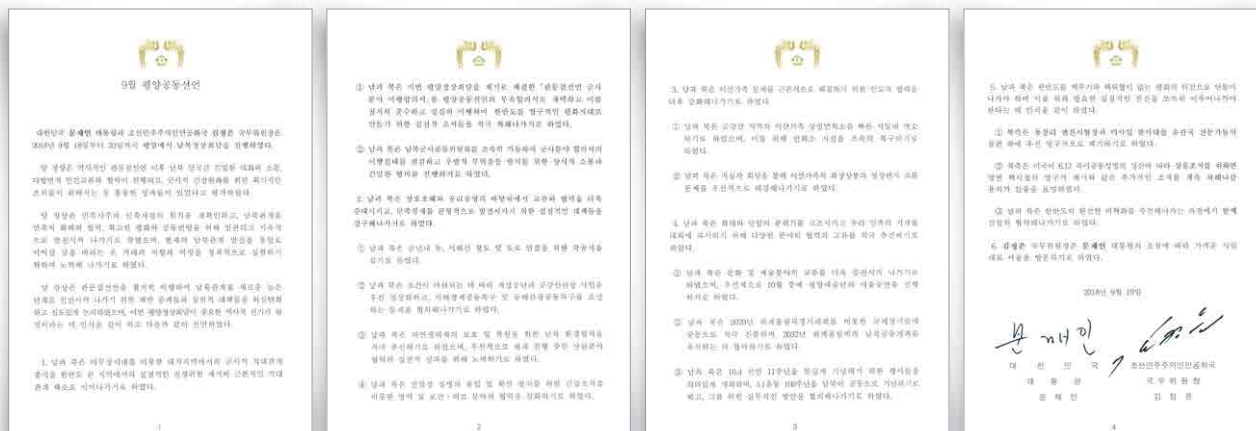
|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9.18.~20., 평양)



|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9.18.~20., 평양)



| 「9월 평양공동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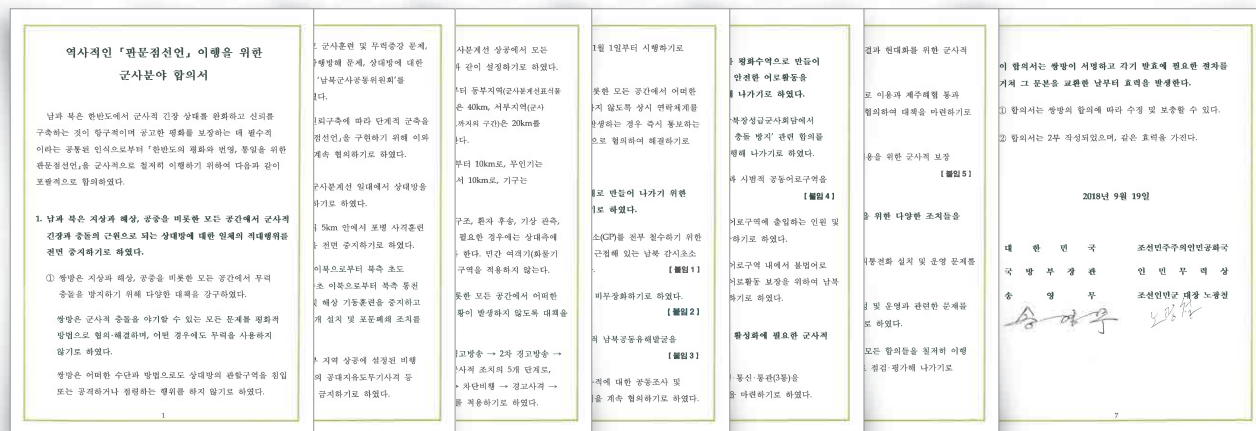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5.1경기장 연설, 남북정상의 백두산 등정 등을 진행하였다.

| 「9.19 남북군사합의서」 서명



| 「9.19 남북군사합의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2018.10.15.,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2018년 10월 1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하고,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 남북사림협력분과회담과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남북체육회담,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 (2018.10.26.,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11월 1일부로 지상 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 중지, 11월 말까지 상호 11개 GP 철수 및 완전 파괴, 11월 초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에 합의하고,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의 정상적인 진행을 확인하였다.

|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2018.11.7., 개성)

- 2018년 11월 7일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치료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통신실무회담 (2018.11.23., 개성)

- 2018년 11월 23일 개성에서 개최된 남북통신실무회담에서 노후화된 기존 남북당국간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 (2018.12.14., 개성)

- 2018년 12월 14일 개성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편지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전달하고, 2020 도쿄하계올림픽경기대회에 국제경기연맹이 제안한 종목을 중심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체육교류



- 1.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7.4., 평양)
- 2. 코리아오픈탁구대회 남북단일팀 혼합복식 우승 (2018.7.21., 대전)
- 3.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2018.5.4.)
- 4.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경기대회 남북단일팀 (2018.8.18.~9.2., 인도네시아)

새로운 남북대화를 향하여



1. 이인영 통일부장관 판문점 방문
2. 이인영 통일부장관 회담장 영상회의실에서 언론과 인터뷰
3. 남북직통전화실(판문점 우리측 지역 자유의 집)
4.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영상회의실 시연회
5.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전경
6. 남북회담본부 청사 전경

부록



1. 남북회담 개최현황
2. 남북합의서 체결 현황
3. 남북회담 추진체계
4. 남북회담본부 연혁

1. 남북회담 개최 현황

1) 연도별 분야별 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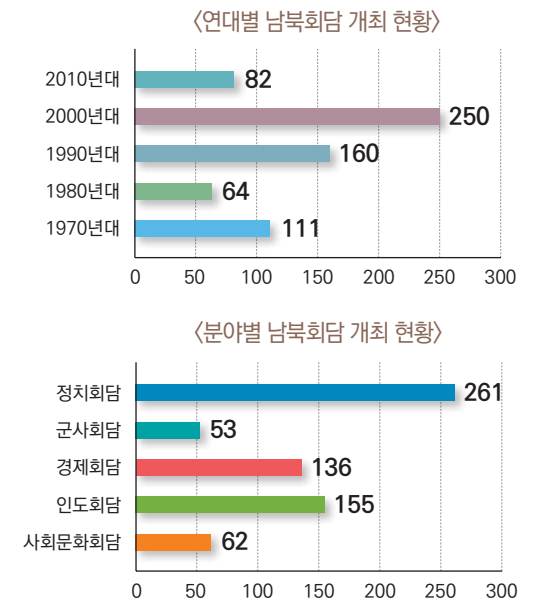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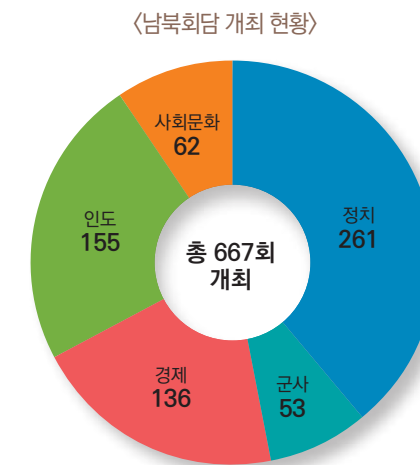
구분 \ 연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정 치		4	7	6	2				3	10			
군 사													
경 제													
인 도	18	32	4	12	8	6	5						
사회문화									4				
합 계	18	36	11	18	10	6	5	0	7	10	0	0	0

구분 \ 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정 치		2			8	7	15	12	80	4	10		
군 사													
경 제	1	4											
인 도	2	6				8	2		8			3	
사회문화	3	1	2	1		9	7	7					
합 계	6	13	2	1	8	24	24	19	88	4	10	3	0

구분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정 치		2	5	18	2	4	5	2	10	5	13		
군 사				4	2	9	6	5	3	4	11	2	
경 제				3	3	14	17	13	11	8	22	3	4
인 도	4	1		2	1	3	7	2	4	3	3		2
사회문화						2	1	1	6	3	6	1	
합 계	4	3	5	27	8	32	36	23	34	23	55	6	6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정 치				1	2	3			19			261
군 사	1	1			1				4			53
경 제	3			22	3	1			4			136
인 도	4			1	1	1			2			155
사회문화					1				7			62
합 계	8	1	0	24	8	5	0	0	36	0	0	667

2) 통계로 본 연대별·분야별 개최 현황



2. 남북합의서 체결 현황

1) 연도별·분야별 남북합의서 체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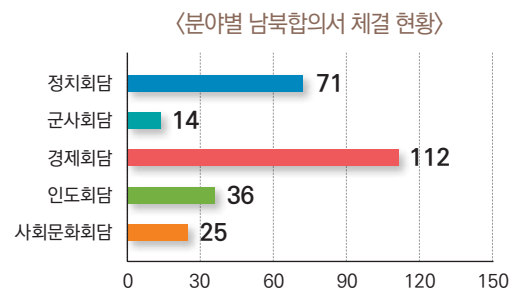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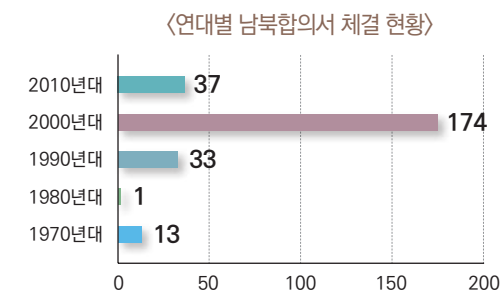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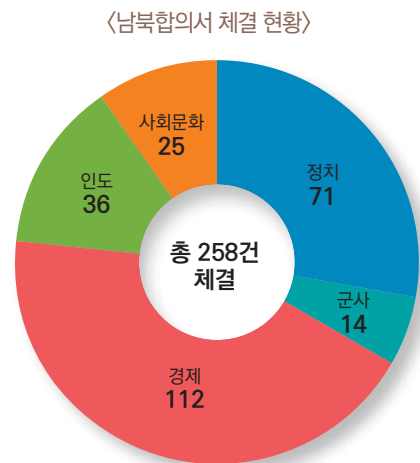
구분 \ 연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정 치		5											
군 사													
경 제													
인 도	1	6		1									
사회문화													
합 계	1	11	0	1	0	0	0	0	0	0	0	0	0

구분 \ 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정 치							1	4	14		2		
군 사													
경 제													
인 도		1										1	
사회문화								7					
합 계	0	1	0	0	0	0	1	11	14	0	2	1	0

구분 \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정 치			1	8	1	4	4	2	6	2	6		
군 사				1		1	3	2			5		
경 제				7	2	15	21	15	11	5	22	3	
인 도	2	1		2	1	2	2		3	2	3	1	1
사회문화						1	1	1	3	1	3	1	
합 계	2	1	1	18	4	23	31	20	23	10	39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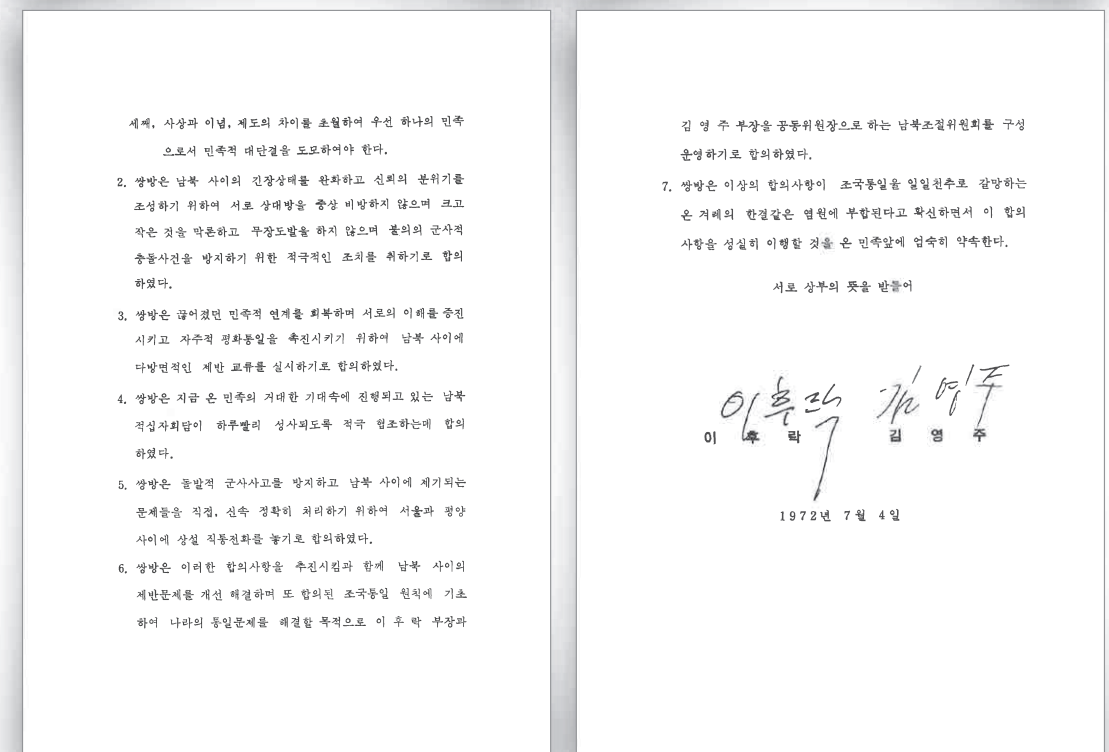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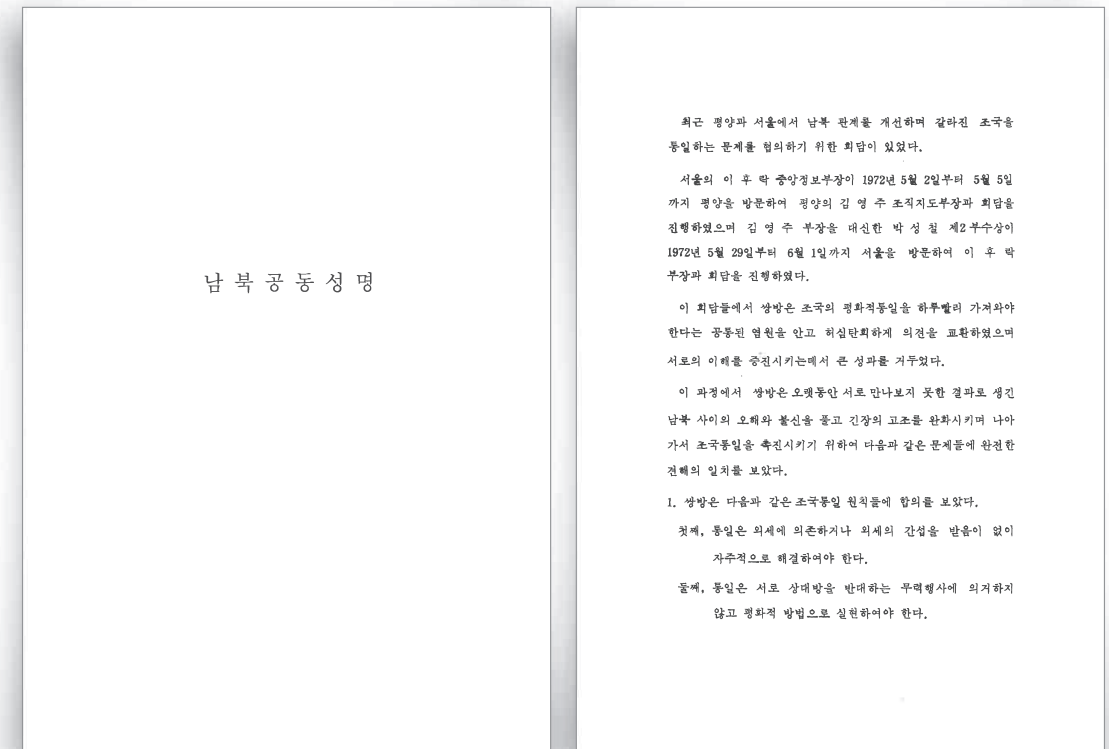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정 치					1	2			8			71
군 사									2			14
경 제				7					4			112
인 도	1			1	1	1			2			36
사회문화									7			25
합 계	1	0	0	8	2	3	0	0	23	0	0	258

2) 통계로 본 연대별·분야별 남북합의서 체결 현황



3) 주요 남북합의서

「7.4 남북공동성명」(1972.7.4.)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 의 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
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
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생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
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생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항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
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
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 정 및 발 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생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 3 장 남 북 교 류 · 협 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흩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 리 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안 성 복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 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 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김대중

7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10.4 선언」(2007.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 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들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백두산관방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6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철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거래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체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4.27 판문점선언」(2018.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한으로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 등을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제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문 제 인

「9.19 평양공동선언」(2018.9.19.)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이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인이 마친다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기로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연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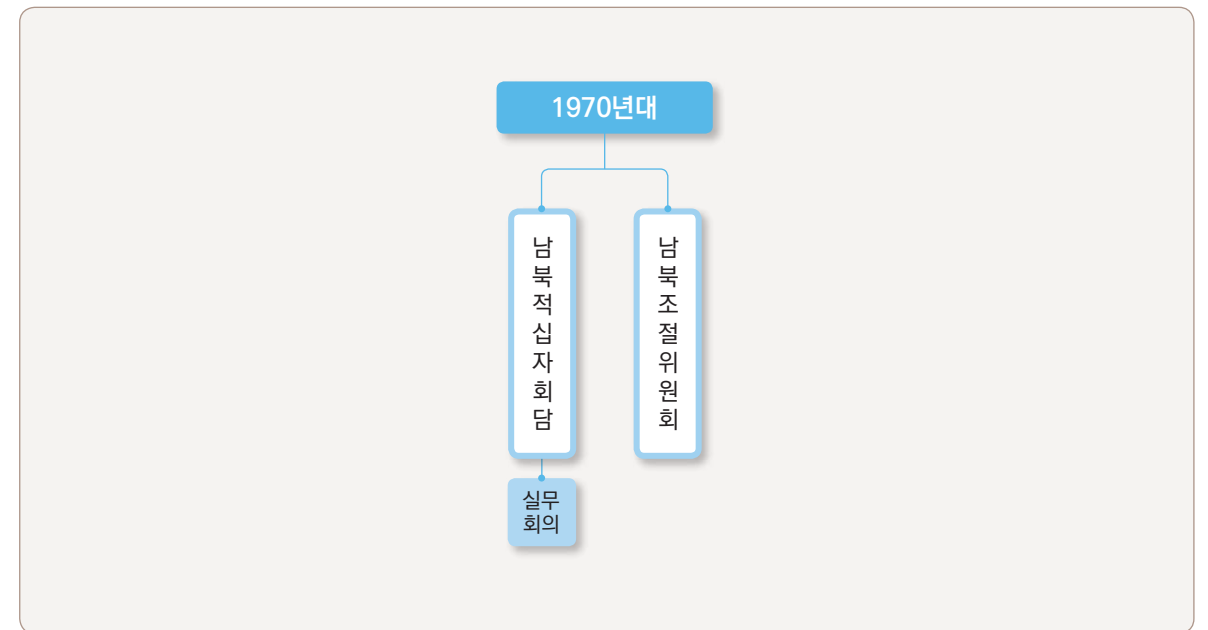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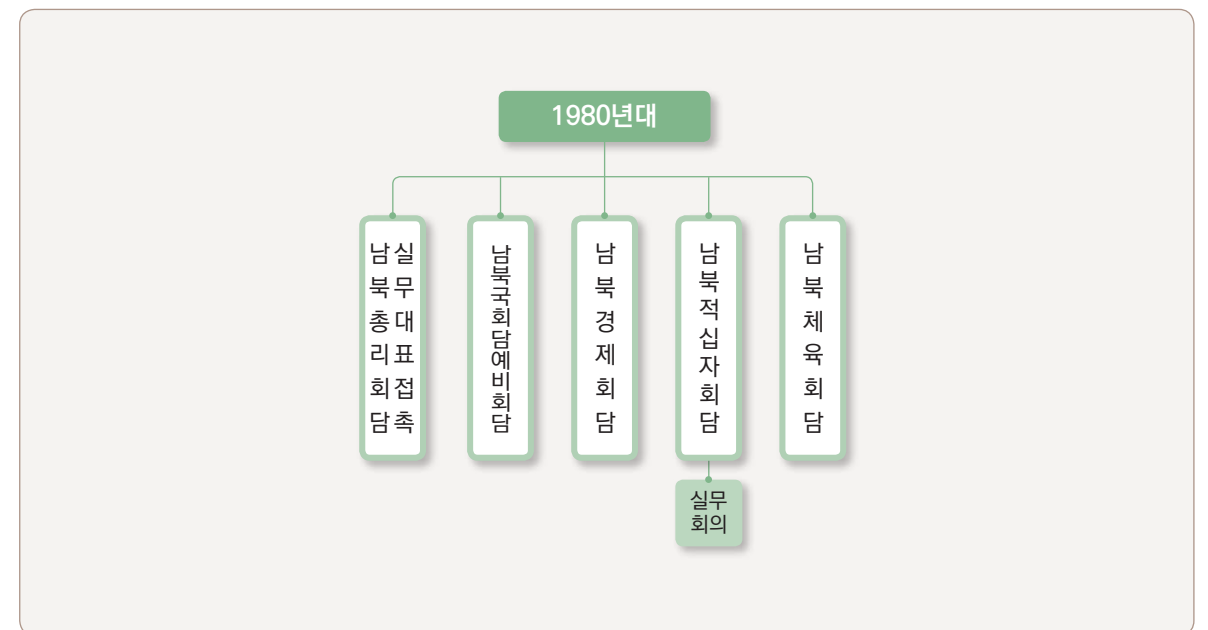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3. 남북회담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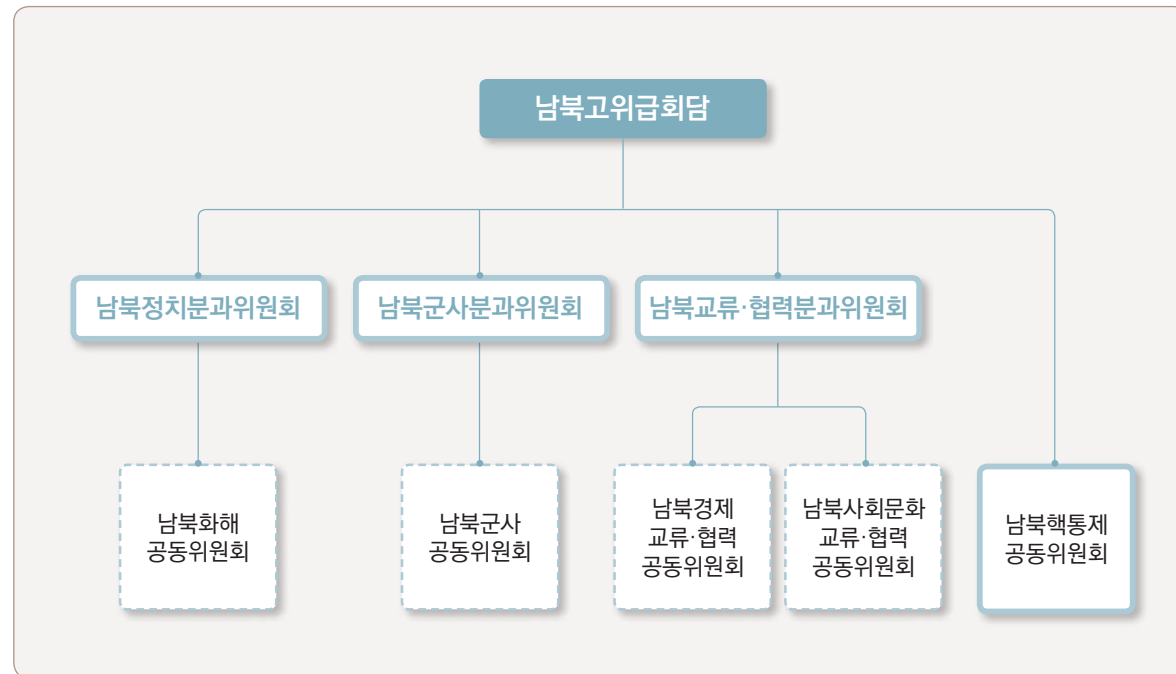
1) 1970년대 남북회담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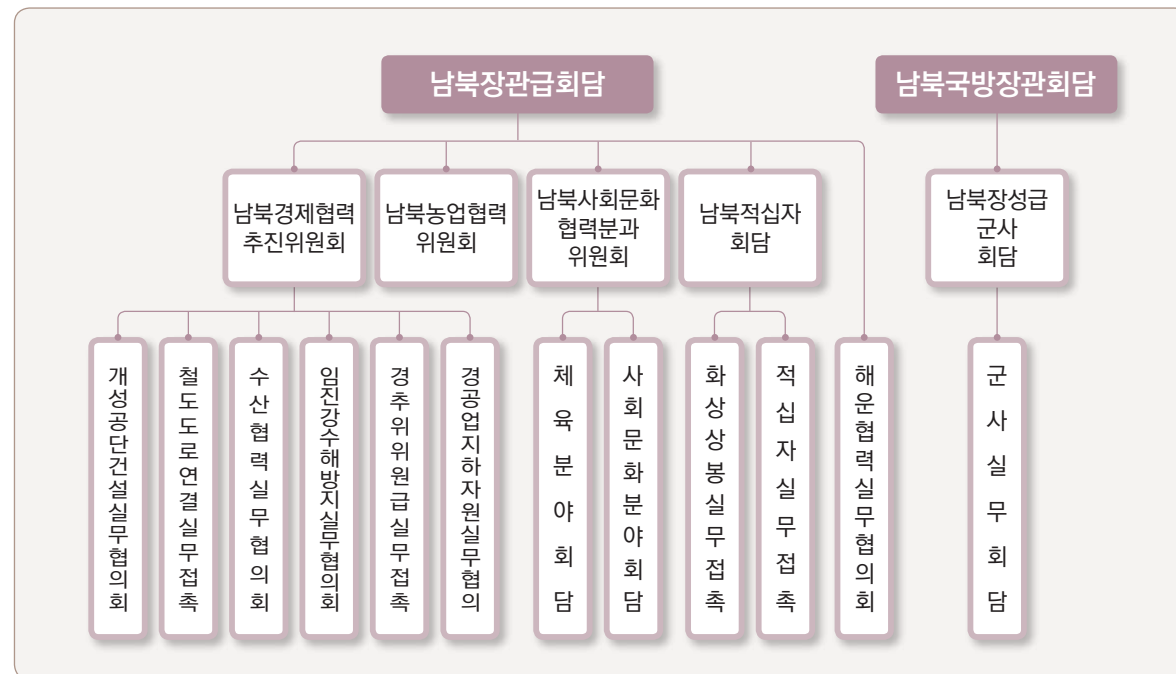
2) 1980년대 남북회담 추진 체계



3) 1990년대 남북회담 추진 체계



4)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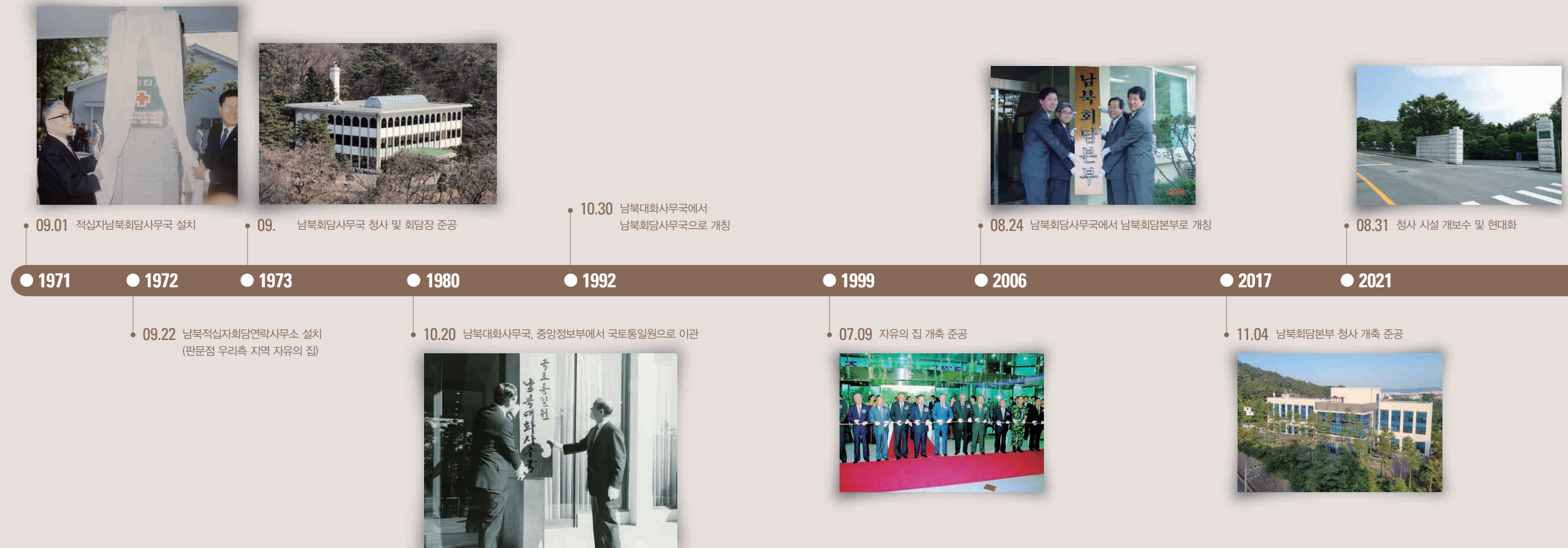
5)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 추진 체계



6)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 추진 체계



4. 남북회담본부 연혁



남북대화 50년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1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전화 : 02-2076-1114

사진제공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한적십자사, 사진기자협회,
연합뉴스, 오픈아카이브(경향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한겨레)

디자인·인쇄 제이케이디자인 : 031-974-1428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149-14

남북대화 50년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Tel : 02-2076-1114 Fax : 02-730-1382